



금속 캔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Supply and Demand of Metal Can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자료제공

금속캔 업계 동향 우리나라에서 캔이 처음 생산된 것은 1938년이며, 1960년대에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 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하였다.

그 뒤 꾸준한 신기술 도입과 개발로 음료, 식품, 부탄가스, 에어졸, 화장품 등 다양한 종류의 캔 용기를 대량생산 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량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민이 빈 캔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을 실천하고 있어 세계적인 캔 재활용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캔의 사용이 널리 확산되면서 캔의 종류나 쓰임새, 캔을 만드는 재료도 다양해졌고 1962년에는 탭(꼭지)을 잡아당기는 것만으로 쉽게 뚜껑을 딸 수 있는 '이지 오픈 엔드'가 개발되었다. 1975년에는 탭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 '스태이 온 탭' 방식이 개발되어 탭(꼭지)이 떨어져 환경을 더럽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등 이제 캔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금속캔 판매실적은 2010년에 비해 3.73% 늘어난 72억9천3백만개로 늘어나 2006년 잠시 주춤했을 때를 제외하곤 꾸준

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음료캔의 경우 알루미늄 2피스캔은 맥주, 탄산, 커피캔이 성장을 한 반면 주스, 스포츠음료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커피의 성장세에 힘입어 커피캔이 36.6%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틸 커피캔이 줄고 알루미늄 캔이 늘어 소비자들이 알루미늄 캔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틸캔의 경우 2피스캔은 커피캔이 줄고 주스, 스포츠 캔이 2010년과 동일한 매출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14.1%가 줄었다.

3피스 캔은 커피캔이 비슷한 매출을 보였지만 주스, 스포츠 캔이 30.7%나 줄어 스틸캔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캔 판매량의 77.6%를 차지하고 있는 음료 캔 시장에서 스틸캔보다는 알루미늄 캔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알루미늄 캔이 갖고 있는 박막화로 인한 무게의 감소, 재활용의 용이함, 재활용에 대한 가격 등에서 스틸보다 우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조림 캔은 전체적으로 4.5% 판매량이 늘었

[표 1] 금속캔 판매실적비교(총괄)(내수, 수출 포함)

(수량 : 백만개)

구분			2011	2010	2009	2008	2007	증감(11/10년 대비)		
							수량		%	
금속 캔 관	알루 미늄	2PCS	맥주관	1,385	1,221	1,068	913	785	164	13.43%
			탄산관	1,306	1,290	1,163	777	585	16	1.24%
			커피관	798	584	419	47	107	214	36.64%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1,457	1,523	1,257	633	512	-66	-4.33%
			계	4,946	4,618	3,907	2,370	1,989	328	7.10%
	스틸	2PCS	맥주관						0	
			탄산관			40	172	308	0	%
			커피관	301	383	456	766	623	-82	-21.41%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197	197	456	1,203	1,211	0	0.00%
			소 계	498	580	952	2,141	2,142	-82	-14.14%
		3PCS	탄산관							
			커피관	97	95	39	37	62	2	2.11%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122	176	179	196	265	-54	-30.68%
			소 계	219	271	218	233	327	-52	-19.19%
계			717	851	1,170	2,374	2,469	-134	-15.75%	
합 계			5,663	5,469	5,077	4,744	4,458	194	3.55%	
통조 림 관	농 산 물		105	116	116	131	147	-11	-9.48%	
	수 산 물		589	577	481	458	408	12	2.08%	
	축 산 물		142	107	57	48	32	35	32.71%	
	합 계		836	800	654	637	587	36	4.50%	
분유관	분 유		24	24	22	24	26	0	0.00%	
미술관	제약관 및 기타		3	3	5	6	3	0	0.00%	
에어졸	에어졸, 부탄		542	510	472	422	434	32	6.27%	
잡 관	0.5~20 l 관		225	225	199	185	186	0	0.00%	
총 계			7,293	7,031	6,429	6,018	5,694	262	3.73%	

는데 농산물이 9.5% 감소한 반면 수산물 2.1%, 축산물 32.7%의 성장을 보여 농산물의 축소를 축산물의 대폭 증가가 만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유 캔 및 미술 캔은 2010년과 같은 판매량을 보였으며 에어로졸 캔은 야외활동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부탄가스의 사용량 증가와 살충제 캔의 증가 등으로 2010년에 비해 6.3% 성장세를 보였다.

일반캔(0.5 ~ 20리터 캔)의 경우도 변동없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캔은 사용 후 폐기되어 재활용되는 비중도 높아 2011년에 84.6%에 달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고품 폐기물 저감효과, 에너지 절약효과가 뛰어나다.

유리병과 PET병과 함께 액체용기의 축을 이루고 있는 캔이 수년간의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 다양하게 인쇄된 음료 캔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로의 제품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음료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동반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스틸캔이 알루미늄 캔으로 대체되는 경향도 캔 시장이 변화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 캔 종류보다는 새로운 형태로의 디자인 및 경량화, 타 재질과의 결합 등도 변화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알루미늄 스틸캔은 지난 10년간 2배, 탄산 캔은 8배, 커피 캔은 20배,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20배의 성장을 해왔고 특히 2009년 이후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2피스 스틸캔 가운데 2피스 캔은 10년전에 비해 5배나 판매가 줄어들었고, 3피스 캔 역시 5배가 줄어들어 스틸캔의 활용도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알루미늄 캔이 작업공정이 쉽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알루미늄 캔의 다양한 적용에 비해 스틸캔은 다른 용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조림 캔 역시 농산물은 계속 줄어들고 수산물과

축산물의 활용도가 높아져 음료용 스틸캔과 농산물 통조림 캔의 감소도 지켜볼 내용이다. 분유 캔 역시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율 저하에 따라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제약관련 캔 역시 최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에어로졸 캔이 약진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를 하고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성장하지 않고 축소되었던 판매량이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 캔 시장은 지난해와 같이 큰 변화없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나 길어진 무더위와 맥주 소비의 증가로 인한 알루미늄 캔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급성장한 커피시장이 점차 축소 또는 위축되는 분위기여서 커피 캔 시장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는 2번의 선거와 유럽경제의 위기, 중국의 고성장이 침체되고 국내 경기의 위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다른 활로는 열려 있기 마련, 수년간 지속해온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